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5월 1일 ~ 2022년 5월 7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부직포 못자리 설치, 모잘록병과 뜸묘 방제에 신경 쓰며, 고구마 수량 증대를 위한 묘 자르기와 묘 심기, 구비대기 양파·마늘과, 노지고추 관리에 힘쓰고 과수 열매숙기로 품질과 수량을 높이도록 한다.

1. 벼농사

- 부직포 피복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~1.5m정도 간격으로 엮어서 고정해준다.
- 어린모 육묘는 적정 물관리와 알맞은 온도 유지를 위해 출아기(30~32℃), 녹화기(20~25℃), 경화기(15~25℃)에 맞추고, 묘판이 너무 건조하면 모가 고르게 자라지 못하고 과습하면 모가 쓰러지거나 뿌리 얽힘이 불량해지므로 물 대는 양과 횟수를 조절한다.
- 모잘록병(입고병)은 봄철 녹화 개시 후 5~10℃의 저온, 또는 출아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주야간 농도 차이가 큰 경우 발생하므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.
- 뜸묘는 육묘 중 7~20℃와 같이 급격한 온도변화와 종자 밀파로 상자 내부가 과습하고 상토층의 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적정량의 종자 과중과 적온을 유지하도록 하며 과중전에 적용약제를 사용한다.

2. 밭작물

- 고구마 묘 자르기 적기는 8~9마디 이상으로 자란 시기이며 묘를 자를 때에는 묘의 밑동 부분을 5~6cm(2~3마디) 남겨두고 잘라야 하며 묘는 먼저 자란 것부터 3~4회 잘라 심도록 한다.
- 옷거름은 묘 자르기 3~4일 전과 묘를 자른 후에도 3.3㎡당 요소 1%액을 4~6L 정도 엽면 살포하면 묘의 품질과 뿌리내림에 도움이 된다.
- 고구마 수평 및 개량수평심기는 피근이 일반적으로 얇은 부분에 착생하기 쉬우므로 지표면에서 2~3cm의 얇은 곳에 묘를 수평으로 심는

방법이고, 휘어심기는 묘의 가운데 부분을 깊게 심어 활착이 좋고 심는 능률이 높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.

- 고구마 심을 때 모래가 많은 사질토양은 지온이 빨리 높아지고 건조하여 활착이 나쁘므로 묘를 3~5일 음지에다 보관하였다가 경화시킨 다음 심는 것이 초기 활착과 생육에 유리하다.

3. 채 소

- 마늘·양파는 구비대기에 토양이 건조하면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을 뿌리에서 흡수할 수 없으므로 비가 오지 않을 때 7~10일 간격으로 30~40mm 정도씩 2~3회 물 대기를 하거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준다.
- 적정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고랑에 잠길 정도로 준 후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두면 멀칭에 의해 수분 증발이 억제되어 장기간 너무 습한 상태로 유지되어 습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.
- 아주심기가 끝난 고추는 가급적 빨리 지주대를 세우고 줄로 단단하게 고정해 쓰러짐을 방지하되, 120cm이상인 지주대를 사용하고, 전년에 사용한 지주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 야간온도가 15℃ 이하에서는 생육이 억제되고, 정상적인 수분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 저온 장애가 발생 하는데, 갑작스런 저온피해 시 요소 0.3%액(60g/20L)을 엽면시비해 주거나 제4종 복비를 잎에 뿌려주어 생육을 도모한다.

4. 과 수

- 과일 열매를 숙는 이유는 과일의 정상 발육을 위한 일정한 엽면적 확보와 과일 비대 촉진 및 품질향상, 해거리 방지에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매숙기를 실시한다.
- 사과는 만개 2주 후 과일의 정상적인 수정여부가 육안으로 판별되면 숙기 시작하여 6월 상순 이전 마무리한다.
- 배는 생리적 낙과가 지나고 착과가 안정되면 가급적 빨리 실시하는데, 1차 열매 숙음은 꽃이 떨어진 다음 1주일 후에 하고, 2차 숙기는 1차 열매숙음 후 7~10일 사이나 봉지 씌우기와 함께 실시한다.
- 복숭아 예비 숙기는 만개 후 2~3주, 본 숙기는 만개 후 40일 전후, 마무리 숙기는 만개 후 60일 이후 순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